

메시지 4
읍과 두 나무

성경: 창 2:9, 17, 계 22:1-2, 14, 읍 1:1, 2:3, 4:7-8, 42:1-6, 롬 8:5-6

I. 성경의 신성한 계시에 따르면 두 나무, 두 근원, 두 길, 두 원칙, 두 완결이 있다.

- A. 생명나무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에게 생명이 되시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하고,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타락할 때 사람에게 죽음이 되는 악한 자 사탄 마귀를 상징한다 — 창 2:9, 17, 시 36:9상.
- B. 생명나무는 자신의 공급과 누림을 위해 생명이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근원이고,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독(毒)인 사탄을 따르는 사람들의 근원이다 — 요 1:4, 15:1, 8:44.
- C. 첫 번째 길은 생명의 길, 비좁은 길이며,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, 하나님을 얻으며, 하나님을 그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공급으로 누리는 길이다. 두 번째 길은 죽음과 선악의 길, 널찍한 길이며, 사람들이 사탄을 따라가 사탄의 자녀가 되는 길이다 — 마 7:13-14, 행 9:2, 요일 3:10상.
- D. 첫 번째 원칙은 생명의 원칙,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칙이다. 두 번째 원칙은 죽음과 선악의 원칙, 곧 하나님에게서 독립하는 원칙이다 — 창 4:3-4, 렘 17:5-8, 요 15:5.
- E. 두 완결은 두 나무와 두 근원과 두 길과 두 원칙의 최종 결과이다.
 - 1. 하나님의 생명의 길의 완결은 생명수의 성인 새 예루살렘이다 — 계 21:2, 9-11, 22:1-2.
 - 2. 죽음과 선악의 길의 완결은 불 못이다 — 계 19:20, 20:10, 14-15.

II. 하나님의 의도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머무는 읍이 아닌,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머무는 읍을 얻으시려는 것이었다.

- A. 읍과 그의 친구들의 논리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에 따른 것이었다. 그들에게는 신성한 계시도, 신성한 생명에 대한 체험도 없었다 — 읍 2:11-32:1.
- B. 읍은 자신의 친구들과 마찬가지로, 하나님의 경륜을 알지 못한 채 옳고 그름에 대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었다 — 읍 4:7-8.
 - 1. 읍도, 그의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정해 놓으신 생명나무의 노선에 있지 않았다 — 창 2:9.
 - 2.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들의 관념은 선과 악 그리고 옳고 그름에 입각한 것으로, 절대적으로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원칙에 따른 것이자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인간적이고도 윤리적인 관념에 따른 것이었다 — 읍 8:1-20.
- C. 읍과 그의 친구들은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영역 안에 있었다. 하나님은 그들을 그 영역에서 구출하여 생명나무의 영역 안에 넣으려고 하셨다 — 읍 1:1, 2:3, 19:10.
- D. 하나님께서 읍을 다루신 목적은 그를 선과 악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키게 하여 그가 하나님을 극도로 얻을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었다 — 읍 42:1-6.

III.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상이 필요하다 — 창 2:9, 계 22:1-2, 14.

- A. 생명나무는 생명이신 그분 자신을 음식의 형태로 그분의 선민 안으로 분배하시는, 그리스도 안에 계신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 — 창 2:9.

B. 생명나무는 우주의 중심이다.

1. 하나님의 목적에 따르면, 우주의 중심은 땅이고, 땅의 중심은 에덴동산이며, 에덴동산의 중심은 생명 나무이다. 그러므로 우주는 생명나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.

2. 하나님에게나 사람에게 생명나무보다 더 중심적이고 중요한 것은 없다 — 창 3:22, 계 22:14.

C. 신약은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라는 상징의 성취이심을 계시한다 — 요 1:4, 15:5.

D. 요한복음에 계시된,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은 생명나무의 결과이다 — 요 6:48, 8:12, 10:11, 11:25, 14:6.

E. 생명나무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의 영원한 몫일 것이다 — 계 22:1-2, 14.

1.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해 태초부터 의도하셨던 것을 영원히 이룬다 — 창 1:26, 2:9.

2.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의 음식이 될 것이다. 이 열매는 달마다 맺혀 계속해서 신선할 것이다 — 계 22:2.

IV. 창세기 2장 9절에 나오는 두 나무, 곧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는 생활의 두 원칙을 나타낸다.

A. 이 두 나무는 그리스도인이 서로 다른 두 원칙, 곧 옳고 그름의 원칙이나 생명의 원칙에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— 고전 8:1.

B. 욥과 그의 친구들은 윤리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추구했지만,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— 고전 15:28, 엡 3:16-21.

C.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의 원칙, 선과 악의 원칙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생명에 속한 문제이다 — 요일 5:11-13, 20.

1. 우리는 주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새 생명을 얻었을 때, 생활의 또 다른 원칙, 곧 생명의 원칙을 얻었다. 우리가 이 원칙을 알지 못한다면, 생명의 원칙을 제쳐 두고 옳고 그름의 원칙을 따를 것이다.

2. 우리는 우리의 실질적인 생활에서 생명나무의 노선 안에 있지 않고,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 안에 있을지도 모른다 — 잠 16:25, 21:2.

3.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, 생명 주시는 영의 영역 안에 있어야 한다 — 고전 15:45하, 롬 8:2.

4.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살려면, 우리는 생명의 내적인 감각을 따라야 한다 — 롬 8:6, 엡 4:18-19, 사 40:31.

a. 부정적인 방면에서 생명의 감각은 죽음의 느낌이다 — 롬 8:6상.

b. 긍정적인 방면에서 생명의 감각은 힘과 만족과 안식과 밝음과 위로의 의식을 포함하는, 생명과 평안의 느낌이다 — 롬 8:6하.

5. 우리가 생명나무의 원칙에 따라 산다면, 선과 악을 주의하지 않고 생명을 주의할 것이며, 옳고 그름에 따라서가 아니라 생명과 죽음에 따라서 일들을 분별할 것이다 — 창 2:9, 16-17, 고후 11:3.

V. 그리스도 안의 참된 믿는 이들은 모두 에덴동산의 축소판으로서, 그들의 영 안에는 생명나무이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들의 육체 안에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인 사탄이 있다 — 창 2:9, 롬 8:2, 5-6.

A.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이 관련된 삼각관계가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, 우리는 에덴동산의 축소판이다 — 창 1:27-29, 2:9, 16-17.

1.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사람 밖에 있었다 — 창 2:9, 16-17.

2. 타락으로 말미암아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우리 안에 있게 되었고,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생명나무가 지금 우리 안에 있게 되었다.

3. 우리의 영은 삼일 하나님과 연합되었고, 육체가 된 우리의 몸은 사탄의 죄악된 요소와 혼합되었다 (고전 6:17, 롬 5:12, 6:6, 12). 이것으로 인해 그리스도인은 에덴동산의 축소관이 되었다.
- B. 창세기 2장에서 아담으로 대표되는 이들로써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생명나무를 갖고 있고, 우리의 육체 안에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갖고 있다 — 창 2:9, 계 2:7하, 22:14.
1. 우리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접촉할 때마다 죽게 되고, 생명나무를 접촉할 때마다 생명을 얻는다 — 롬 8:5-6, 10.
 2. 우리가 선과 악의 지식나무 편에 서서 사탄을 접촉한다면 사탄의 생명을 살아 낼 것이고, 그 결과는 죽음일 것이다 — 고후 11:3, 롬 3:23, 요일 3:4.
 3. 우리가 생명나무 편에 서서 하나님을 접촉한다면 하나님을 살아 낼 것이고, 그 결과는 생명일 것이다 — 요 11:25, 14:6, 15:1, 4-5.
- C.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은 에덴동산의 축소관을 보여 준다. 이 축소관에서 한쪽에는 육체와 죽음이 있고, 다른 쪽에는 영과 생명이 있으며, 그 중앙에는 생각이 있다.
1. 로마서 8장을 통해,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살아 계신 분께 돌이켜서 그분과 하나인 상태로 머무는 것임을 알게 된다 — 롬 8:6하, 고전 6:17.
 2.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, 우리는 생명과 평안과 빛과 위로와 힘을 얻고, 목마름이 해소되며, 배고픔이 채워진다 — 롬 8:5, 6하, 요 4:14, 7:37-38, 마 5:6.
 3.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둘 때, 우리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된다 — 롬 8:6하.
 - a. 우리의 외적인 행실과 내적인 존재 사이에는 불일치가 없기 때문에, 우리는 평안을 갖는다 — 롬 8:6하, 사 9:6-7, 26:3.
 - b.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영에 두고서 말할 때 생명이 우리가 하는 말에 체현되는데, 이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 영이기 때문이다 — 잠 18:21, 요 6:63, 엡 4:29.